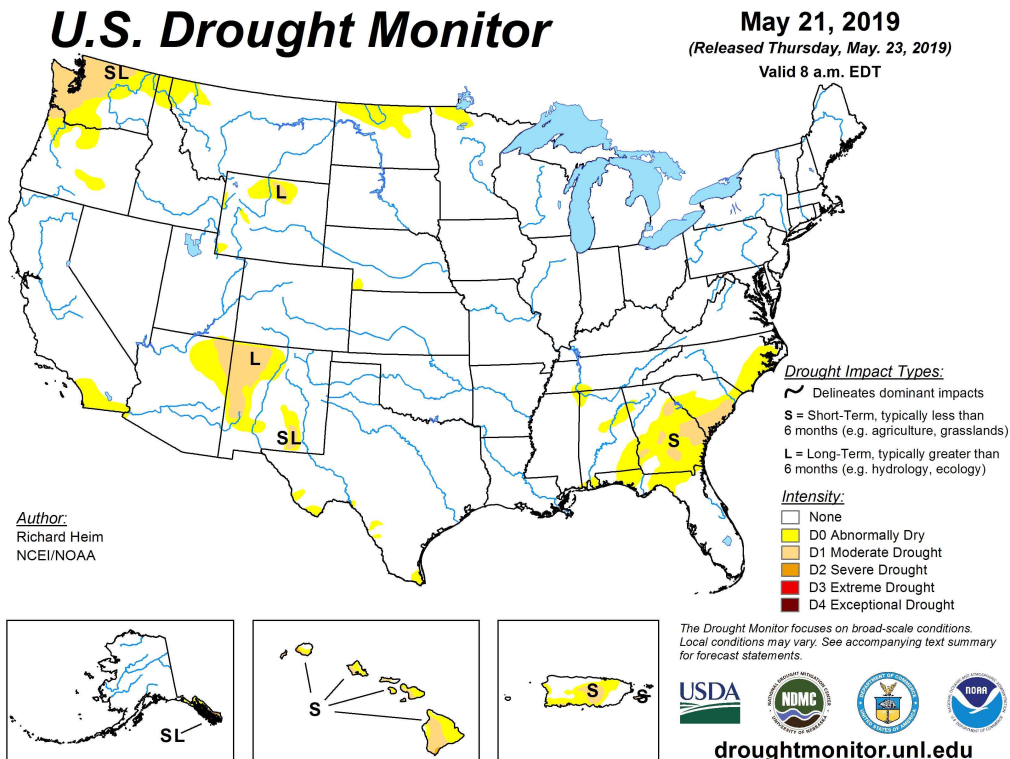


5월 2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61)

□ 미국 기후 현황(5/19~5/25)

총강수량이 4-12 인치에 달할 정도로 폭우가 반복적으로 내린 이후에 아칸소강 및 캔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에 있는 이 강의 지류들에서 역사적인 홍수가 발생했다. 대평원과 중서부의 아주 넓은 지역에는 최소 2-4 인치의 비가 내려서 야외 작업이 제한됐고 다양한 정도로 홍수가 일어났다. 게다가 심한 뇌우와 부분적으로 발생한 토네이도로 지역별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대조적으로 남동부는 뜨겁고 대체로 건조하여 춘과 작물들에 필요한 표토 수분은 줄었지만, 파종을 촉진했고 겨울밀 성숙을 앞당겼다. 남애파래치안을 중심으로 하여 넓은 면적에서 주간평균온도가 정상보다 10° F 가량 높아져서 빠른 속도로 작물을 발달시키는데 유리했다. 한편 서부는 계속 춥고 소나기가 잦은 조건들이 우세하여 늦봄에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에 익숙해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서는 작물의 품질을 위협받고 있다. 시에라 네바다에서부터 중앙 로키 산맥까지 높은 고도에 내려 쌓인 눈은 일시적으로 중앙 대평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상 쌀쌀한 상태가 미국 서부와 중부의 많은 구역을 덮어서 남서부에서부터 고원까지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10-15° F가 낮았다. 만기에 내린 서리가 고원 일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중인데 북쪽에 위치한 일련의 주들을 가로질러 드문드문 산재되어 있는 곳들과 동콜로라도와 서네브라스카가 영향권 아래에 있다.



□ 농업 현황 요약(5/20~5/26)

호우의 대부분은 미국 중부에 집중되어 캔사스, 미조리, 오클라호마 일부에 가장 심하게 내렸는데, 어떤 지역은 강우량이 12 인치에 이르기도 했다. 미시시피 삼각주 지역, 대서양 중부, 북동부, 남동부, 오하이오 계곡을 가로질러 정상보다 높은 온도가 눈에 띄었다. 캐롤라이나, 조지아, 테네시, 버지니아에서는 온도가 정상보다 최소 6° F 이상 높았다. 대조적으로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캔사스, 몬타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유타, 와이오밍 일부에서는 정상보다 최소 9° F 이상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5/19~5/25)

■ 유럽: 북서유럽과 남서유럽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건조 포켓들이 있기는 했지만, 광범위하게 내린 비가 유럽 대륙의 많은 곳에 걸쳐서 겨울 작물들의 생식과 종실 비대에 유익했다. 비는 동프랑스에서부터 중앙 및 남폴란드와 북발칸에까지 가장 심하게 내렸다 (25-80 mm, 지역적으로는 이 이상). 북프랑스에서부터 북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에까지는 가벼운 소나기가 (1-20 mm) 눈에 띄었다. 이 수분은 겨울밀과 유채의 생식 (북부)과 종실비대 (남부) 전망을 더욱 밝혀주었다. 더욱이, 남서프랑스에 내린 중간-강한 비 (10-60 mm)가 최근에 심은 옥수수과 해바라기에 필요한 토양 수분량을 상승시켰다. 한편 스칸디나비아에 내린 비슷한 양의 강우는 밀과 유채의 개화에 유익했다. 대체로 젖는 기상 패턴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스페인, 남동영국에서는 건조가 계속되었다. 이런 지역들 중에서 잠재적인 영향이 가장 큰 곳은 밀과 보리가 종실 비대 단계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였다. 영국의 밀과 유채는 겨울 작물들이 생식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5월 초에 시기적절하게 내렸던 비로 혜택을 입었다. 그래서 현재 날씨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해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북동부 재배 지역에서는 비정상적인 더위 (정상보다 최고 7° C 까지 높음)가 작물의 발달을 가속화하기는 했지만 이 기간 동안 평균 온도는 대체로 정상의 1-2도 정도로 그쳤다.

■ 구소련(서부): 남부와 서부 재배 지역들에 전반적으로 내린 중간-강한 소나기가 겨울과 여름 작물들에게 유익했다. 적절한 곳에 제때에 내린 비 (10-60 mm, 지역적으로 이 이상)가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서러시아와 남서러시아에까지 생식 중인 겨울밀과 영양 성장 중인 여름 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을 밝혀주었다. 강우 시기는 개화 단계에 있었던 (최남단 재배 지역은 종실 비대 단계) 겨울밀에게는 거의 이상적이었다. 그 지역의 대부분은 젖은 봄 덕분에 토양 수분 공급이 좋거나 우수하다. 우크라이나와 서러시아에서 90일 강수량은 정상 수준 또는 그 이상이었던기 때문이다.

■ 동아시아: 주초에 소나기가 북동중국 일부에 걸쳐서 25 mm 이상이 내려서 토양 수분을 상승시키고 옥수수, 콩 및 벼의 활착을 돕고 있다. 북동부 전체적으로 30일간이 총강수량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이상이었고 작년 수준보다 높았다. 한편 남중국에서는 젖은 날씨가 계속되어 25 mm에서 100 mm 이상 내린 비가 생식 중인 조과 벼와 영양성장 중인 여름 작물에 유익을 주고 있다. 대조적으로 북중국 평원에서는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밀의 성숙을 촉진하고 있다. 서쪽에서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이상 저온 날씨 이후로 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목화 발달을 촉진했다. 일본의 많은 곳에 내린 소나기가 (25-100 mm 또는 그 이상) 벼에 필요한 수분 공급을 상승시켰고 한편으로는 최북단 일본과 (홋카이도) 한반도에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관수 수요가 상승되었다.



■ 호주: 남퀸슬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불리하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겨울밀의 발달을 방해하고 있다. 5월이 시작하면서 젖는 비가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그 이후로 건조한 날씨가 느리지만 꾸준하게 포도의 가용 수분량을 줄여왔다. 겨울 작물의 발달이 다시 탄력을 받으려면 비가 곧 와야 하고 그 지역의 많은 곳들에 피해를 주고 있는 장기 가뭄을 끝내려면 젖는 비가 반복적으로 와야 한다. 더 남쪽으로는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가 (5-20 mm) 남동호주 지역의 밀, 보리, 캐놀라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을 계속 유지해주었다. 향후 몇 주 동안은 일정한 발아와 출현을 촉진하고 꿈지럭거리면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가뭄에서 이 지역에서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는 더 광범위하게 내리는 젖는 비가 환영받을 것이다. 밀 벨트 내의 기타 지역을 보면 서호주에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돌아와서 초겨울 곡물과 유지작물 발달을 늦추고 있다. 작년과 비슷하게 5월초 이후의 호주의 강수량은 정상보다 계속 낮았다. 최근에 심은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려면 강수량 증대가 환영받을 것이다. 평균온도가 서쪽은 정상 근처에 있었고 남쪽과 동쪽은 정상보다 2-4 ° C 높았다.

■ 아르헨티나: 지역적으로 호우가 다시 시작되어서 곧 다가오는 겨울 곡물 철에 필요한 토양 수분량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여름 작물 수확작업은 다시 방해받고 있다. 총 강수량은 25-100 mm 수준인데 북동쪽에 집중되어 있고, ‘산타 페’에서부터 북쪽으로 동포르모사를 지나기까지 내렸던 가장 강한 비들 (50 mm 이상) 가운데서 얼마가 목화 지역에 내렸다. ‘살타’와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의 서쪽 농장 지대와 ‘포르모사’에서는 다소 낮은 강수량 (25 mm 이하)이 기록되었다. 정부의 보고서들은 더 젖어 있는 북쪽 지역들에서는 목화 수확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쓰면서 심한 젖음이 목화 꼬투리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남쪽으로는 ‘라 팜파’, ‘부에노스 아이레스’ 및 ‘코르도바’, ‘산타 페’, ‘엔트레 리오스’와 같은 인근 지역들에는 좀 더 약한 비가 (5-25 mm) 내려서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수확에 유리한 날씨를 끝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과 콩은 5월 23일 현재 각각 51%와 82% 수확되었고 코르도바와 엔트레리오스에서는 밀 파종이 시작되었다. 주간평균온도는 정상 근처 또는 그 이하였는데 ‘라 팜파’와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부분에 결빙이 발생했다.

■ 브라질: 브라질 남부의 주요 옥수수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강해졌고, 중부 농장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건조가 우세했다. ‘마토 그로소 도 술’ 남부와 ‘파라나’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강수량은 총 25-100 mm 내렸는데, 이 비로 새로 심은 밀은 물론이고 늦게 심은 옥수수에 필요한 수분을 올려주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5월 20일 현재, 두 번째로 심은 옥수수는 3% 수확되었고 거의 90%에 달하는 나머지 작물들이 종실 비대에서부터 성숙까지의 발달 단계에 놓여 있다. 한편 밀은 60% 파종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는 밀 파종이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되었고, 옥수수과 콩의 수확은 거의 다 끝났다고 한다. 반면에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의 많은 구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낮 최고 온도가 지점별로 섭씨 30도 대 중반-후반에 달함) 우세했다. 계절적으로 건조한 상태를 경험하는 지역들에는 핵심 옥수수 지역과 목화 지역이 (‘마토 그로소’에서부터 북동쪽으로 ‘고이아스’와 ‘토칸틴스’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상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 같은 사탕수수와 커피 지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지역들은 초기 수확 작업을 위해서 계절적인 건조함이 환영받는 것 같다.
